

#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벗인 노인 여러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처럼 노인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 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병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알고 계시며,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위로합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노인이,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이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손주나 가족 가운데 한 사람, 오랜 벗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는 소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작은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

고 손주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전하는 일에 나이가 몇 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새로운 소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활동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성령께서는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든 이루십니다.

현재의 위기는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을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사회를 되살리고 지원하는 데에 적극 참여”(『모든 형제들』 77항)하기 위해 세 가

지 기둥 - 꿈과 기억과 기도- 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의라는 우리의 꿈, 평화라는 우리의 꿈, 연대라는 우리의 꿈은 우리 젊은 이들이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은 나이 든 모든 이의 참된 사명입니다. 삶의 토대인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그 기억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노인들의 기도는 세상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이들의 노고보다 어찌면 더 통찰력 있게 세

